

Ⅲ. 지역경제일지 (2023.10.1~ 10.31일)

▷ 10.6일 : 인천, 전세사기 피해 및 보증금 사고 전국 최다

- 인천(1,540건)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 전국 최다를 기록
 -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이 시행된 6월 이후 지역별로 실제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6,063건 중 인천 1,540건, 서울 1,442건, 경기 1,046건 순
- 금년 중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또한 인천(4,049건)이 전국 최다를 기록
 - 전국 1만 2,260건 중 인천 4,049건, 서울 3,272건, 경기 2,897건 순

▷ 10.16일 : 인천공항 여객 수 빠른 회복세

- 올해 3분기 중 인천공항 여객 수는 1,542만명으로,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,500만명을 상회
 - 전년동기대비 180.8% 증가하였으며,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 대비 86.0% 수준까지 회복
- 하계성수기·추석 연휴 효과, 보복여행 수요, 중국 노선 여객회복세 등이 빠른 회복세의 배경으로 평가
 - 중국 노선 여객 수는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2.2%에 불과하였으나, 3분기에는 53.1%까지 상승

▷ 10.22일 :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직접 투자 회복세

-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FDI가 3억 5,4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(3억 9,230만 달러)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 - 영종(1억 7,660만 달러), 송도(1억 7,490만 달러), 청라(270만 달러) 순으로, 청라국제도시의 FDI는 타 도시 대비 낮은 편

- 인천경제자유구역 FDI는 기초적인 하락 추세로,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전국화에 따른 분산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

- 인천경제자유구역 FDI는 2018년 13억 3,410만 달러에서 2021년에는 7억 3,890만 달러, 2022년에는 3억 9,230만 달러를 기록

▷ 10.23일 : 인천지역 폐업 건설사 증가

- 올해 3분기까지의 인천지역 종합·건설업체의 폐업신고가 전년동기대비 51.8% 증가한 126건을 기록

- 공식적으로 집계된 폐업신고 건수 외에, 실질적으로 운영을 멈춘 업체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은 건설사들이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

- 부동산 경기침체,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, 금리 인상 등이 최근 폐업 건설사 증가세의 원인으로 평가

▷ 10.31일 : 인천시, 한중일 항만도시 교류·협력 추진

- 인천시는 한(인천)·중(텐진)·일(고베) 항만도시 교류·협력과 함께 경제공동체의 구성을 올해 6월 텐진에 제안한 데 이어 10월 요코하마에 제안

-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추진 등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인천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보이며, 항만도시 간 협력 증진 시 물류, 관광, 문화 교류 부문에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가능성